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하느님의 자비”	“사순 제 4 주일”	2009년 3월 22일
복음 묵상:	[요한 3,14-21]	[2 역대 36,14-16,19-23]	[에페 2,4-10]

옛날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항해할 때면 어김없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북극성이다. 밤하늘에 뚜렷하게 빛나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로를 바로잡았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최신 전자 장비를 갖춘 오늘날의 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 갈 수 있지만, 일 년에 한 번씩은 필히 북극성에 맞추어 전자 장비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 해 놓는다. 그래야 바른 방향을 향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항로, 신앙 항로에도 뚜렷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없다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은 필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북극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에서 부딪힐 위험스러운 암초를 피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닿을 수 있으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뱀의 독침에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뱀은 곳곳에 파리를 틀고 있다. 불신의 뱀, 탐욕의 뱀, 욕망의 뱀, 시기와 질투의 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파리를 뜬 채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가? 그 뱀들은 우리를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럴수록 구리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멸망에서 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항로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주는 신앙의 상징이다. 세상의 모든 빛이 힘을 잃어가고 온갖 진리가 퇴색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빛과 진리는 불변하는 신앙인 것이다. 일 년 동안 갖가지 유혹과 나약함으로 방향을 잃은 신앙의 나침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북극성에 맞추고 다시 신앙의 항해를 시작하자. 부활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라는 어둠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에 고정하고 그 빛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안전한 육지에 닿을 것이다. (춘천 고병연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입단: 주님이 예비하신 조휘연 그레고리오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이스에 입단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입단을 축하하며 두손 벌려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

- 조성숙 리따자매님 2개월 여정으로 한국에 나가십니다. 여행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입단하기로 한 김현관 다윗형제님은 캘리포니아에 오신지도 얼마 되지않은데다 회사일로 출장도 너무 자주나가게 되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참석할 수없을 뿐아니라, 금년 에는 중국에 장기 출장계획까지 있어 현재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틀림없이 성가대에 입단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과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두 자매님들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부활 성가 연습에 대하여

- 앞으로 부활이 3주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연습 기간에 아침 시간을 꼭 지켜 연습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 아래에 가시면 언제든지 파트별로 개인이 연습을 할 수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복음 [요한 3,14-21]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1분 명상

♡우리가 외롭고 답답 한 까닭은♡

(좋은글 중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몇몇 사람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가슴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와 명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큰 가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몇몇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인류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그 크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혼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크고 따뜻한 가슴 가슴속의 측은지심으로 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죽어버리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신세가
 됩니다,
 가슴이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을 컨트롤 할 수 없고
 자기 감정을 어찌지 못해서 감정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줄 알며 당당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